

GYEONGNAM MECENAT

경남메세나협회
GYEONGNAM MECENAT ASSOCIATION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GYEONGNAM
MECENAT



Cover story 〈무제(1994)〉 _ 故현재호 作

1981년 마산에 정착해 마산에서 삶을 마감한 그는 과장과 왜곡을 활용한 특유의 표현법으로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그린 작가다. 더없이 따뜻하고 행복한 모습의 유토피아적 세계를 화폭 가득 담은 이 작품에는 숭고한 아름다움이 스며있다.

Contents

27 vol.

메세나 칼럼	02	창의적 나이 듦 – Creative Aging
아름다운 동행	08	닮은 꼴 친구사이 월드크리닝 X 경남윈드오케스트라
	12	아름다운 동행, 10년 ㈜정일 X 예술단 樂
활동 후기	16	모험, 그 매력적인 도전 – 극단 〈상상창꼬〉
메세나 인터뷰	20	경남 청년예술인들과의 진솔한 대담
포토포엠	26	남계서원 by 이상헌작가
스페셜 칼럼	28	故현재호의 예술세계 – 〈존재자〉로서의 〈존재〉 찾기
메세나 스페셜	32	아트스팟055
메세나 소식	34	2019년도 정기이사회/정기총회
	35	예술단체 워크숍
	36	경남메세나 임원간담회
	37	전국 메세나단체 경남워크숍
	38	유채연, 프라하의 봄 콩쿠르 1위
	39	즐거운 나눔티켓 – 김해
	40	2019 GIAF 경남국제아트페어
인조이 컬처	42	TIMF 재즈나이트
	44	문화도시 상하이
	48	레오나르도 다빈치 타계 500주년

발행인 황윤철
발행일 2019. 8. 1
발행처 경남메세나협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F
055. 285. 5611
편집인 강신철
진 행 손수나
기획·디자인 디자인바오

창의적 나이 듦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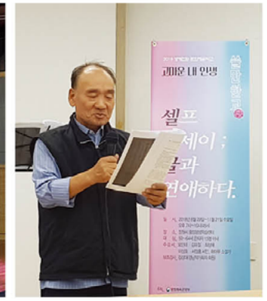
Creative Aging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었다. 이 세대의 평균 기대수명은 82.3세(2017년 통계청 자료 기준)로 이들 인생은 아직 1/3 이상 남아있다. 위로는 부모봉양, 아래로는 자식부양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숨 가쁘게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은퇴 이후 갑작스럽게 직면하게 된 막연한 삶, 시간의 과잉, 관계의 소멸에 중년이 느끼는 걱정과 고민은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신중년(50~64세)이 경험하는 사회적 변화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제안했다. 소설의 독자, 연극공연의 관객이 아니라 스스로 작가가 되고 배우가 되어 문화 향유 행위의 진정한 주체로서 중년의 존재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 방법은 무척 매력적이다.









신(新)중년의 시대

지금의 중년은 이전 중·노년층과는 다른 신(新)중년이다.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여운이 가시지 않은 즈음에 태어나 보릿고개의 끝자락을 맛보았다. 정치적으로는 어렵게 민주화를 만들어 냈다. 성인이 되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며 'IMF 시대'라는 경제 위기도 극복했다. 디지털 문명을 접한 첫 세대로서 기술의 힘을 가장 가까이에서 주도적으로 겪은 세대이기도 하다.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적 부흥을 이룬 세대라는 자부심을 가진 신중년은 축적된 경제력과 건강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도전을 즐기는 특별한 세대다. 그러나 은퇴 후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첫 세대로서 은퇴 이후 향유할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하여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한 세대이기도 하다.

생애전환기, 왜 문화예술교육과 만나야 하는가?

대한민국 성인(20~64세)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진행한 '2019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는 자기표현력(1위), 행복감(2위), 자아존중감(3위)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생애전환의 시기 신중년이 경험하는 위기에 가장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다.

문화예술교육은 무목적성의 예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제2의 삶을 통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 한다. 경제적 가치가 아닌 즐거움을 추구하며 인생의 색다른 맛을 경험하게 한다. 예술적 교류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존재감을 찾게 하기 때문이다.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Creative Aging

하마터면 놓칠 뻔한 '나'를 찾는 곳

일반적으로 노후준비라 함은 건강을 관리하고 안정적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이것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행복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두 번째 삶을 위한 베이스캠프가 필요하다.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는 생애전환의 순간,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여 하마터면 모르고 놓칠 뻔한 '나'를 찾아 인생 후반전, '나'답게 사는 법에 대해 고민해보는 곳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신중년들이 각박한 삶의 틀을 깨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인생 후반전을 활기차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생애전환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2018년부터 〈문학과 함께 한 달 살아보기〉, 〈자연과 한 달 살아보기〉, 〈품격 있는 고난으로 한 달 살아보기〉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경남, 인천, 대전, 세종, 충남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문학과 함께 한 달 살아보기

- 작가와 중년 : 책. 만나다
  - 작가와 함께 삶에 대해 토론하고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봄으로써 공감대 형성
- 북스테이 : 책. 떠나다
  - 책을 마음에 품고 여행을 떠나 깊이 있는 자아성찰의 기회 갖기
- 문학관 –:책. 살다
  - 문학관을 방문하여 작가의 삶과 문학을 통해 사람과 사회 이해하기
- 글 쓰기 : 책. 스미다
  - 한 달간의 경험을 글로 담아 발표, 생각을 정리하고 미래를 꿈꾸어보기

자연과 한 달 살아보기

- 농사로 예술짓기 & 예술로 농사짓기
  - 삶의 문명에서 벗어나 농사를 통해 행복의 가치 되찾기
- 자연의 숲, 인간의 숲, 행복의 숲
  - 숲 속의 자연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며 감각을 일깨우고 나만의 행복의 숲 만들기
- 바다명상, 나를 디자인하자!
  - 명상을 통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존재감 회복하기

품격있는 고난으로 한 달 살아보기

- 사이의 연극 일상을 변화시키다
  - '나와 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아 재형성하기
- 사진과 함께 한 달 살아보기
  - 진실된 눈으로 피사체를 들여다 보며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 획득하기

1교시 : 주체적 · 자발적 학습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지난 2018년 가을,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문학과 함께 한 달 살아보기〉를 진행했다. 문자에 익숙한 신중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문학'을 매개로 한 기본적인 교육 프레임을 제시하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자유롭게 기획하고 그 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스승–제자의 관계로 일컬어지는 수직적인 교육의 형태에서 벗어나 신중년 참가자 개개인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진지한 태도로 함께 기획하며 즐기며 각자 선택한 책을 읽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퇴직 후의 미래에 대한 걱정 등 주로 걱정 이야기를 많이 하던 신중년들의 대화 주제가 문학 작품 감상, 문학을 통해 되돌아본 나의 삶, '나도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과 설렘이 담긴 수다로 바뀌었다. 참가자들의 문학적 감수성이 고취되었고, 글쓰기를 통하여 자아를 확인하며 인생 후반전의 주인공이 될 새로운 사회적 존재감을 스스로 형성해가기 시작했다.

2교시 : 삶, 나이 듦, 관계의 재형성

신중년 시기는 갑작스러운 인간관계의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다. 퇴직, 은퇴로 인하여 사회적 활동 범위가 좁아지고, 장성한 자녀의 독립으로 빈 둥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을 겪기도 한다. 다양한 상황 변화로 인해 기존의 관계가 점점 축소되고 사회적 관계 맺음의 양상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필요해진다.

하버드 대학교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성인발달 연구〉에서 '인간의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원만한 인간관계'라는 결론을 내렸다. 삶을 가장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이고, 가족과 친구, 공동체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하고, 장수했으며,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음을 학술적 데이터로 증명하였다. 인간의 말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적 빈곤이 아니라 사랑의 빈곤이며 타인과의 진정 어린 관계가 삶의 내적 풍요로움을 결정짓는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관계재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하루 한 알 사과를 먹는 것보다
사과를 같이 따러 갈 친구가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_ Artful Aging Resource Guide 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Creative Aging

하마터면 놓칠 뻔한 '나'를 찾는 곳

일반적으로 노후준비라 함은 건강을 관리하고 안정적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이것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행복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두 번째 삶을 위한 베이스캠프가 필요하다.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는 생애전환의 순간,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여 하마터면 모르고 놓칠 뻔한 '나'를 찾아 인생 후반전, '나'답게 사는 법에 대해 고민해보는 곳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신중년들이 각박한 삶의 틀을 깨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인생 후반전을 활기차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생애전환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2018년부터 〈문학과 함께 한 달 살아보기〉, 〈자연과 한 달 살아보기〉, 〈품격 있는 고난으로 한 달 살아보기〉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경남, 인천, 대전, 세종, 충남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문학과 함께 한 달 살아보기

- 작가와 중년 : 책. 만나다
  - 작가와 함께 삶에 대해 토론하고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봄으로써 공감대 형성
- 북스테이 : 책. 떠나다
  - 책을 마음에 품고 여행을 떠나 깊이 있는 자아성찰의 기회 갖기
- 문학관 –:책. 살다
  - 문학관을 방문하여 작가의 삶과 문학을 통해 사람과 사회 이해하기
- 글 쓰기 : 책. 스미다
  - 한 달간의 경험을 글로 담아 발표, 생각을 정리하고 미래를 꿈꾸어보기

자연과 한 달 살아보기

- 농사로 예술짓기 & 예술로 농사짓기
  - 삶의 문명에서 벗어나 농사를 통해 행복의 가치 되찾기
- 자연의 숲, 인간의 숲, 행복의 숲
  - 숲 속의 자연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며 감각을 일깨우고 나만의 행복의 숲 만들기
- 바다명상, 나를 디자인하자!
  - 명상을 통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존재감 회복하기

품격있는 고난으로 한 달 살아보기

- 사이의 연극 일상을 변화시키다
  - '나와 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아 재형성하기
- 사진과 함께 한 달 살아보기
  - 진실된 눈으로 피사체를 들여다 보며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 획득하기

1교시 : 주체적 · 자발적 학습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지난 2018년 가을,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문학과 함께 한 달 살아보기〉를 진행했다. 문자에 익숙한 신중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문학'을 매개로 한 기본적인 교육 프레임을 제시하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자유롭게 기획하고 그 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스승–제자의 관계로 일컬어지는 수직적인 교육의 형태에서 벗어나 신중년 참가자 개개인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진지한 태도로 함께 기획하며 즐기며 각자 선택한 책을 읽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퇴직 후의 미래에 대한 걱정 등 주로 걱정 이야기를 많이 하던 신중년들의 대화 주제가 문학 작품 감상, 문학을 통해 되돌아본 나의 삶, '나도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과 설렘이 담긴 수다로 바뀌었다. 참가자들의 문학적 감수성이 고취되었고, 글쓰기를 통하여 자아를 확인하며 인생 후반전의 주인공이 될 새로운 사회적 존재감을 스스로 형성해가기 시작했다.

2교시 : 삶, 나이 듦, 관계의 재형성

신중년 시기는 갑작스러운 인간관계의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다. 퇴직, 은퇴로 인하여 사회적 활동 범위가 좁아지고, 장성한 자녀의 독립으로 빈 둥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을 겪기도 한다. 다양한 상황 변화로 인해 기존의 관계가 점점 축소되고 사회적 관계 맺음의 양상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필요해진다.

하버드 대학교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성인발달 연구〉에서 '인간의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원만한 인간관계'라는 결론을 내렸다. 삶을 가장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이고, 가족과 친구, 공동체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하고, 장수했으며,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음을 학술적 데이터로 증명하였다. 인간의 말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적 빈곤이 아니라 사랑의 빈곤이며 타인과의 진정 어린 관계가 삶의 내적 풍요로움을 결정짓는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관계재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하루 한 알 사과를 먹는 것보다
사과를 같이 따러 갈 친구가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_ Artful Aging Resource Guide 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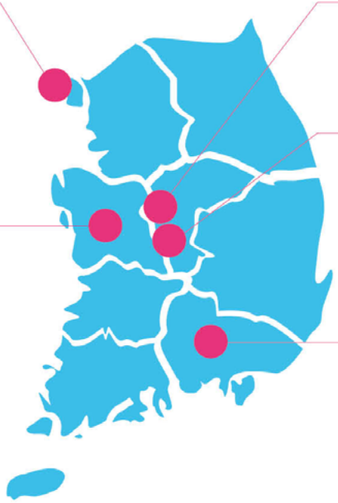
지역문화 예술교육센터의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를 소개합니다.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 스스로 학교 : 생애전환 학습활동 지원사업
2.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생활예술 프로그램
   : 바느질, 여행, 요리, 연극, 드로잉, 미디어 등 6개 분야 강좌 진행
3. 생애전환 문화예술특강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 홍성군 〈동굴 속으로 고고(考告)〉
2. 예산군, 청양군 〈모여유(遊) 사랑방〉



세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진 및 미디어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 청춘문화 VJ / 나와의 진담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꽃보다 작가〉 미디어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 서로 물들어가다: 지금, 우리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 신중년, 아트 !?+-÷ 크리에이터 되기

경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고마운 내 인생 – 쓸만한교(敎)〉
- 오늘부터 삶을 디제잉하다
- 맛난 생활예술놀이터
- 나의 발견, 그림책으로 엮다
- 50플러스 밴드놀이
- 숲에서 시를 만나다

우리 지역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고마움 내 인생, 쓸만한敎〉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사)지역문화공동체 경남정보사회연구소와 협약을 맺고 2018년도부터 '고마운 내 인생 – 쓸만한교(敎)'를 운영하고 있다. 1970년대에 조성된 마산수출자유지역과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창원을 거점지역으로 삼고 은퇴자 또는 은퇴를 앞둔 신중년들의 삶이 예술을 만나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다. 얼마 전 2기 참가자들을 맞이하면서 1기 교육생들과 함께 동창회도 개최했다. 다가오는 가을에는 합천으로 가을 소풍도 떠날 계획이다.

시를 어떻게 쓰냐하던 한 참가자는 농부시인을 만나 자연을 만나더니 어느새 뚝딱 두 편의 시를 내놓았다. 지난 30년을 자식 걱정으로 보냈던 주부는 "남은 생은 나를 사랑하며 살거야!"를 외치는 라디오 DJ가 되어 음악과 이야기를 나누며 치열하게 살아온 자신을 다독였다. 평생 음치라는 이유로 노래를 부르지 않았던 공무원은 용기를 내어 좋아하는 노래를 완창 했다. 그렇게 경남의 신중년들은 마음의 힘을 기르며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다.

참

잘 따라왔다

조용석
쓸만한敎 – 글과 연애하다(2018)
프로그램 참가자

글과 연애하는 모임따라
보따리 쌌다

합천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내 옆 앉은 정치하는 갑식선생
입담은 오늘 즐거운 날을 예고한다

의령 지나 꼬불한 산골 마을 경치
이리도 좋은데
참 잘 따라왔다

눈가림 하라길래
잠시 눈먼 길 내려가는 길이
진정 삶의 길일까
걱정도 팔자제

햇볕 내리 앉은 볕단 떠난
논밭은 내 맘 같아 아리하다

처녀 같은 새댁부터 늙은 나 같은 사람까지
스무 남짓 앉혀놓고
열변 토하는 농부시인 오른쪽 입가엔 벌써
하얀 거품 물었다

시 얘기에 왜 내 눈엔 눈물이
와 이리 나올꼬

안 따라 왔으면
오늘 6층 옥상 보일러는 고쳐졌겠지

근데 오늘 이 가을 나들이 맛은
몰랐을 끼제
참 잘 따라왔다

보일러는 낼모레 고치면 되제





지난 '쓸만한교, 볼만한 학예회'에서는
눈물이 나서 혼났다.
생애전환 색색깔 각자의 삶이 어우러져
문화예술이라는 참기름 한 방울을 만나
버무려지니 더 고소하고 맛난 인생 비빔밥이 되었다.
(참가자, 조용석)

(사)지역문화공동체 경남정보사회연구소 | 참가문의 055) 265-0021
건강한 사람들의 숲 (사)지역문화공동체 경남정보사회연구소는 지역의 도서관 운동, 주민의 평생교육, 정보문화발전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건강한 지역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자 1994년 설립되었다.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삶속에 세상의 건강한 변화를 일으키는 씨앗이 숨겨져 있음을 믿고 건강한 사람들의 숲을 만들어가고자 행복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글_정인정 사진_bao



월드크리닝 × 경남윈드오케스트라



경남윈드오케스트라 김영환 단장과 월드크리닝 한정남 대표. 이 두 사람의 특별한 우정이야기를 만나러 간 곳은, 경남 양산에 위치한 월드크리닝 본사. 상당히 현대적인 시설에 쾌적한 환경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세탁처리가 이뤄지고 있었다.

삶에 도전하고 행동하는, 닮은 꼴 친구 사이

우정의 힘은 얼마나 클까? '친구'라는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곳일까? 어려울 때 선뜻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도움을 건넬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 우정이란 이름으로 4년째 후원을 이어온 친구, 그런 친구가 있어 음악활동이 더 즐겁다는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동행스토리를 전한다.

1999년 IMF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시기에 창업해 20년째, 영남을 비롯해 수도권 등 전국으로 성장세를 펼치고 있는 기업체이다. 당시 개인이 영세하게 운영하던 세탁소에서 발상을 전환해 해외 기술과 장비를 과감하게 도입, 기업형으로 새롭게 도전했다. 세탁업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마음을 먹었고, 6개월(33세) 만에 실행에 옮겼다.

"냉정한 통찰력에 열정적인 도전을"이라는 경영이념에는 이 사업을 끌어온 축적된 생각이 그대로 담겨 있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은 안 했다. 일 그 자체를 즐기고 만족을 느꼈다"는 월드크리닝 한정남 대표. 그런 친구가 뿌듯하고 자랑스러워 한껏 어깨가 힘이 더 들어간 듯한 사람은 오히려 경남윈드오케스트라의 김영환 단장이다.

삶에 도전하고 행동하는, 닮은 꼴 친구 사이

두 사람은 통영 고향에서 태어나 동네 언덕길과 바닷가를 함께 뛰어다니고 도산초등학교와 도산중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이다. 그 인연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다. 더러 학교나 직장 따라 다른 도시로 가버린 친구들은 만나기가 쉽지 않았지만, 마산, 창원에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생활을 이어갔던 몇몇 친구들은 사회에 진출하고도 자주 만남을 이어갔다. 그 시골 소년들의 우정이 기업과 예술의 만남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경남윈드오케스트라는 2009년 오랜 직장생활 끝에 뭔가 새롭게 집중할 것이 필요했던 김영환 단장이 동호회 성격으로 만든 관악기로 이뤄진 오케스트라이다.


1

친구 덕분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고맙죠

"음악을 전공한 건 아니었지만 밴드를 오래 해왔고, 악기를 좋아했고. 잘 할 수 있는 게 악기이고 해서, 친목 모임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5~60명이 목표를 두고 성과물을 만들어내면 어떨까... 그렇게 시작했죠."

어렵다는 친구의 말에 단번에 OK

하지만 규모는 꽤 컸다. 60명 가까운 연주자들이 한번 연습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무대에 서는 일은 '돈'과 직접 연관되는 일이었다. 회원들만의 십시일반으로는 꾸려나가기가 힘들었다.

"경남윈드오케스트라를 창단해놓고 60명 회원을 꾸려가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다 했더니, 저를 안다는 그 이유만으로 선뜻,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손을 잡아준 친구가 월드크리닝 한정남 대표이다. "서로 너무나 잘 알죠." 이 한마디에 이유가 있었다. 너무나 잘 알기에 도와달라는 친구의 말을 단박에 알아차린 한정남 대표. 친구 김영환 한 사람만 보고, 4년째 후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친구의 호의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는 김영환 단장. "친구 덕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즐기면서 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고맙죠."

세탁업에서도 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두 친구. 무슨 일이든지 즐기면서 재밌게 자신만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두 친구의 모습이 꽤나 닮아 있다.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어오며 업계 최고의 자리로 성장하고 있는 한정남 대표. 2003년 태풍 매미때 대우백화점 지점이 모두 뻘 속에 잠겨 2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보상해야 했던 때도 정면 돌파로 위기를 극복해냈던 뚝심 강한 사업가이다.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장이 중요하다는 지론, 근본이 좋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장 중심에 두고 고심하며 끝없이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왔다고 한다.

그렇게 여러 번의 고난을 넘어온 한정남 대표였기에, 친구의 부탁을 더 잘 이해해줬는지도 또, 부탁하는 친구 마음을 잘 알았는지도 모른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기업과 고객이 함께 가니까 기업인 입장에서 후원하는 게 나쁠 것 없지 않냐, 다른 봉사나 기부도 많이 하는 입장에서 모르는 사람도 도와주는데 친구면 더 좋지 않은가... 사업가로서의 판단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친구 아이가?' 하는 경상도식 우정이 짙게 배여 있다.


2

친구 좋고 나도 좋고 좋지 아니한가?

아닌 게 아니라, 월드크리닝에서는 여러 사회공헌과 기부사업을 함께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경남소방본부와 MOU를 체결해 소방직원 800명에게 세탁할인과 화재 현장 의류를 무료로 세탁해주는 사회공헌을 해나가고 있다. 그런 제의가 오면, 항상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한정남 대표. 이 마음은 경남윈드오케스트라 단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연주를 앞둔 연주자들을 위해 무대의상을 세탁을 특별히 책임져주는 일이다. 연주회를 앞두게 되면 60명 가까이 되는 연주자들에게 세탁 상품권을 단원들에게 각각 선물하는 것. 연주하기 전에 깨끗하게 세탁해 입고 끝나면 또 깨끗하게 입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 것이냐며 한정남 대표가 직접 제안한 것이다. 함박웃음을 머금은 김영환 단장은 "연주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지원이죠. 연주 전에 무대의상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입고 무대에 오르면 기분도 상당히 좋고, 연주회마다 부담도 적고, 다들 너무 좋아하죠" 어린아이마냥 친구 자랑이 즐겁다. 친구의 이런 배려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는 김영환 단장. 한정남 대표는 오히려 "받는 사람 좋지 않겠습니까?"라며 머쓱한 웃음이다.


3

우정이 만들어 낸 기업과 예술의 하모니

사실, 이 두 사람은 매일 안 보면 죽고 못 사는 사이는 아니다. 서로 걸어온 길도 다르다. 어릴 때부터 그냥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친구이다. 하지만 그 9년의 유년 시절보다 지난 수년간 같은 지역에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쌓은 우정이 더 깊어졌다. "친구가 악기를 좋아하는지 몰랐다. 근데 그런 큰 오케스트라를 봉사단체로 운영한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높게 평가한다."는 한정남 대표.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잘 해내는 친구가 참 멋지다"는 김영환 단장. 두 사람의 우정이 만들어 낸 기업과 예술의 멋진 하모니가 무대를 통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리라.

사실 음악, 잘 모릅니다.
뭐가 좋은건지, 취향도
살짝 안맞습니다
그래도
친구가 단장이니까..
내가 좀 적게 쓰면 되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1 한정남 대표와 김영환 단장
2 경남윈드오케스트라
3 월드크리닝 한정남 대표

글_정인정 사진_bao



㈜정일
×
예술단 樂



시원한 진해 앞바다와 맞닿아 있는 진해루 해변무대. 정기 공연을 1시간여 앞둔 예술단 樂의 리허설이 한창이다. 가야금, 북, 태평소 같은 국악기는 물론, 키보드, 드럼 같은 서양악기도 함께 녹아들었다... 산책 나온 시민들은 하나 둘 발걸음을 멈추고 열린 객석에 주저앉는다. 신명나는 장단에 어깨가 들썩~ 귀에 익은 소리에 입 꼬리가 옴싹~ 어느새 무대와 객석이 흥겹게 어우러진다.

아름다운 동행, 1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은 고리타분해진 지 오래...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세상, 특히나 요즘처럼 어려울 때에 10년 서로 지지해줄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진해를 넘어 이제 경남 최고의 국악 단체로 성장한 예술단 樂, 그 성장에는 ㈜정일의 박종춘 대표의 지지가 있을 터이다. 10년을 변함없이 이어온 둘의 아름다운 동행을 가만가만 따라 가보자.

인연의 시작?
– 2010년부터 10년째 이어온 인연

예술단 樂 송기혁 단장 : 메세나의 매칭펀드 사업에 대해 전해 듣고 예술에 관심 있는 기업체를 많이 찾아다녔죠. 그런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단체 좋아하는 기업인 한 분께 조심스레 말씀드렸더니 '우리는 너무 작아서 힘든데 좋은 분 소개해 줄게. 아마도 거절 안 하실 거다.'해서 찾아가서 여차여차 설명해 드렸죠. 정말 조금 생각하시더니 너무나 흔쾌하게 지원해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정말이지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그런 기분이었죠.

㈜정일 박종춘 대표이사 : 인연이 되려니까 됐겠죠? (웃음) 경남 메세나에 발 담그기 전에 진해에서 자체적으로 메세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요. 젊을 때부터 JC청년회의소, 바르게살기 회장, 라이온스 같은 여러 단체를 통해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고, 진해 중소기업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활동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예술단 樂과도 인연이 닿았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일 박종춘 대표
"나눌 수 있기에 나누는 것뿐이죠
내가 가진 게 내 것이 아니니까요"

㈜정일(대표이사 박종춘)은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자 기업의 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와 결연을 맺고 메세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오고 있다.

경남메세나협회 창립 때부터 회원사로 활동하며 문화예술 후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이외에도 장학회 및 봉사회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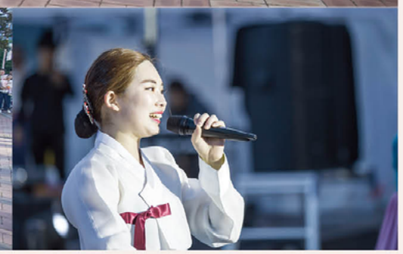
1



2



3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맺은 인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많은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박종춘 대표에게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메세나 활동은 어떤 의미일까?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정말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일찍 직업전선에 나서게 됐다는 박종춘 대표. "어차피 빈 몸으로 낳고 어렵게 자라왔는데… 기회가 돼서 나눠주면 마음이 좋잖아요. 없으면 나눠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한다.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고 담담하게 말하는 박종춘 대표. 가지는 것만큼이나 가진 걸 나누는 게 더 힘든 법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참 멋지다는 생각과 함께,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을 인생 여정이 어땠을까 어렴풋이 짐작해본다. "나눠주는 건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역의 예술단체들에게는 디딤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술단 樂 송기혁 단장 "메세나 매칭 펀드 통한 지원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마중물"

그 나눔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예술단 樂은 2001년도 창단해 전북 전주에서 활동하다 2004년에 진해 내려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전통예술과 음악을 근간으로 해 현대세계에 맞는 창작음악은 물론, 전통 음악 문화 보존과 동시에 이를 대중들에게 널리 전파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창원시 진해구 소재의 전통예술전문예술단 '예술단 樂'과 결연을 맺고 아름다운 동행을 약속했다.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귀한 인연 덕분에 예술단 樂은 전통음악 작품 연구와 교육, 연주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고. 현재 예술단 樂은 전국을 누비며 매년 60회에 달하는 공연을 동시에 소화하고 있으며 단원들의 역량 강화와 우수 공연물 창작을 위해 열심을 다 하고 있다.

"이 문화예술계가 잘 되는 곳은 항상 잘 됩니다. 하나의 공연이나 무대가 시발점이 돼서 또 다른 무대, 또 다른 공연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 첫 씨앗이 중요하죠." 회원중심으로 연구 활동과 작은 연주무대를 이어오던 예술단 樂은 10년 전부터는 메세나 지원이 합쳐져서 창작 작품 활동도 할 수 있게 됐다. ㈜정일과의 인연에서부터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송기혁 단장. "씨앗이 됐죠. 메세나 매칭펀드를 통해서 규모가 있는 활동을 하게 되니까, 또 다른 사업도 같이 가능하게 되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사업도 신청해서 따게 되고, 그렇게 좋은 작품 만들어지는 시발점, 우리 예술단 樂에게는 마중물 같은 존재입니다."

4



척박한 문화예술의 땅에 뿌리는 씨앗, 열 개의 나무와 열매로 결실 맺길…

언제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 판단되면 지원하겠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박종춘 대표.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수 있냐는 질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거절은 안 하죠."라고 말한다. 박대표는, 나누는 일은 상부상조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열 개 중에 하나를 도와주면, 상대가 또 도와줄 수 있는 열 개가 되고 그 열 개 중에 하나를 누군가에게 주면, 또 그게 열 개가 된다. 그렇게 순환되고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나눔이다"라고 말하는 박종춘 대표. 오랜 사회공헌활동과 나눔 속에서 얻는 지혜가 빛난다.

예술단 樂은,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회원들의 힘으로 유지되어왔다. 회원 40명, 국악을 전공하거나 주업으로 하는 단원 16명과 강습회와 수련, 공부를 함께하는 회원 4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송기혁 단장은 "사람이 힘이지요. 전 인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회원들도 그렇고, 특히나 박종춘 대표님도 만나고…"

이제 명실상부 경남 제1의 국악예술단체라 자부할 수 있다는 예술단 樂, 10년 동안 인연을 맺으며 지켜본 박종춘 대표는, "늘 바뀌는 대중에게 잘 맞춰가면서 우리 국악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며 "그런 토대가 마련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말한다.

요즘 밭일에 푹 빠져 있다는 박종춘 대표는 어쩌면, 허허벌판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에 어떤 주저함도 없을 터이다. 그 씨앗이 언젠가는 튼튼한 나무로 자라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척박한 예술의 땅에 국악의 씨앗을 뿌리고 키워내는 송기혁 단장 역시 그 모습과 닮았다.

변화무쌍한 험난한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10년째 좋은 인연을 맺어오고 있는 ㈜정일의 박종춘 대표와 예술단 樂의 동행이 울창한 예술의 숲으로, 찬란한 문화의 열매로 피어나길 기대한다.

5



6



1-6 예술단 樂 찾아가는 음악회

Babel F.A.S.T.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극단 〈상상창꼬〉의 루마니아 〈바벨 국제공연예술제〉 참가 후기

모험, 그 매력적인 도전

김소정
극단 〈상상창꼬〉
상임연출

애초 루마니아 〈바벨 국제공연예술제(Babel F.A.S.T.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에 참가하기 전에 이미 루마니아의 연극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지난해 서울연극협회가 주최한 〈서울연극폭탄(ST-BOMB)〉에서 기획 초청한 루마니아의 공연은 전통적인 연극을 넘어선 실험적인 무대를 보여줬고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후 루마니아 〈바벨 국제공연예술제〉에 대한 정보를 접했고 그 축제의 성격이 우리 극단이 추구하는 면들과 유사점이 많아 무척 흥미로워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행히 축제 관계자와 소통이 잘 이루어져 순조롭게 축제 참여가 결정되었다.

올해 9회째를 맞은 〈바벨 국제공연예술제〉는 찬란한 문화예술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루마니아에 있어서는 중요한 국가적인 예술제다. 이 축제가 표방하는 바는 전통을 넘어서 새로운 공연예술의 문법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축제가 '연극실험실'로 지칭되기도 하는데, 축제에서 올려지는 공연은 실험성이 강한 연극이 대부분이다. 매해 새로운 축제의 주제가 정해진다.

재작년에는 '몸', 작년에는 '소리'였고 올해 공연주제는 '이미지'로 이 축제가 얼마나 미래지향적인가를 알 수 있다. 올해는 19개 국에서 40여 개 그룹이 참가했다.

〈상상창꼬〉가 루마니아로 가져간 작품은 〈후에〉라는 신체극이다. 2015년 몽골에서 열린 〈성 뮤즈 국제연극제〉에서 개인상을 받고 다음 해 몽골 국립극단의 초청을 받아 워크숍을 했을 정도로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이 작품은 마창대교에서 일어난 가족동반 자살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다. 부친에 의해 죽을 위기를 넘긴 한 소년의 성장기가 그려진다. 〈후에〉는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범한산업과 결연관계에 있는 우리는 협조를 요청했고 지원이 확정되면서 우리는 공연을 위해 연습에 돌진했다. 사실 후에는 해외 투어공연에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진 연극이다. 해외투어용 공연은 무대장치가 최소한이어야 하고 참여 인원이 많아서는 곤란한데 〈후에〉는 3명의 배우와 영상, 조명, 음향 총 6명이 참여하는 작품이었다.

〈후에〉의 무대장치는 〈BT 아시바〉다. 이것은 높은 곳의 무대장치나 조명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구조물이다. 굳이 우리가 어렵사리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루마니아에 구조물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했고 승낙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작품에 필요한 오브제나 의상 등의 작은 소품만 가지고 갈 수 있었다.



1



2

1 2019 바벨 국제공연예술제 포스터
2 ㈜범한산업의 매칭펀드 후원으로 예술제에 참여한 상상창꼬 단원들

하지만 연습 현장은 매우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럽은 신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 수준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고 더구나 루마니아는 문화예술에 대한 수준이 세계적이었기 때문에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쩌면 치기 어린 모험과 도전이라는 말이 적합할지 몰랐다. 2달여 동안 연습하면서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영상을 보면서 분석 보완하면서 하루 평균 8시간 연습에 몰입했다.

그리고 드디어 루마니아행 비행기를 탔다. 하지만 루마니아 비행경로는 만만치 않았다. 창원에서 4시간 반에 걸쳐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3시간을 대기해 9시간을 비행해 경유국인 러시아에 입국했다. 그리고 러시아 공항에서 3시간 반을 대기해서 루마니아행 비행기를 탔고, 3시간을 다시 비행해 루마니아의 수도 부카레스트에 도착했다. 그리고 1시간 반을 달려 축제가 열리는 도시 트르고비슈테(Târgovite)에 도착했다.

SangSangChangkko with "After" Bumhan

긴 비행으로 파김치가 되었지만 우리는 공연에 대한 걱정과 열정으로 가득했다.

루마니아의 첫인상은 구름이 많다는 것이었다. 뒤에 알고 보니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구름이 많고 낮게 깔리는데 먹구름이 아니라 새털 같은 흰구름이어서 오히려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트르고비슈테 시는 소도시라 높은 상점이나 인파가 북적대는 곳은 아니다. 오히려정돈이 잘 된 지역이고 고풍스런 집집마다 넓은 장미정원을 가지고 있어 그곳에서 도란도란 맥주와 음식을 먹는 풍경이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깨끗한 의복과 밝은 표정의 시민들, 사람 중심의 질서를 존중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축제 첫날에 청소년을 비롯 많은 시민들이 독특한 의상에다 페이스페인팅을 하고 축제에 참가하러 가는 모습을 거리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저 설레는 표정이 아니라 즐기는 모습이 더욱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날 밤,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거리를 뛰어다니고 턱시도를 입은 남자가 친구들과 스포츠카를 타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다녔다.

결혼식 피로연인가 하고 눈여겨보았더니 낮에 본 축제 관계자와 배우들이어서 웃음을 터뜨리게도 했다. 말하자면 축제 컨셉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밤에는 말을 타거나 차를 타고 또 횃불이나 폭죽을 터트리며 많은 시민들이 축제를 축복하고 즐겼고 각국의 축제 참여자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퍼레이드를 벌였다.

특히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자진해서 축제에 참여하고 즐기는 모습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공연을 즐기고 예술가에 대한 존경과 호의를 표현할 줄도 알았고 좋은 공연을 식별하는 눈과 그것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데 무척 진지했다. 루마니아의 시민들은 사람과 현상에 대해서 진지했고 시선은 유쾌했고 행동은 열정으로 가득 찼다.

이를 동안의 무대작업 그리고 연습이 내내 이루어졌다. 한국에서는 극단 〈가변〉과 〈유목민〉이 참가했는데 그들도 역시 우리와 다름없이 연습에만 내내 몰두하는 모습이었다. 역시 한국인들은 성실함 속에 숨어있는 순수한 승부욕을 감추지는 못했다. 공연 전날까지 적당한 프로젝트를 구하지 못해서 영상 맵핑 사용 가부를 두고 고민되기도 했지만, 공연 날 우리는 무대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받았고 주최 측 기술자들이 제작한 구조물과 함께 기분 좋게 최종리허설에



1

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오후 5시, 〈토니 불란드라 극장(Tony Bulandra Theatre)〉 메인무대에서 루마니아의 예술가들과 관객 앞에 섰다.

공연은 성공적이었다. 관객은 환호했고 브라보를 외치면서 몇 번의 리브콜을 받았다. 마지막 커튼콜 때는 루마니아 국기를 상징하는 색깔의 티셔츠를 배우들이 입고 나와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까지 받았다. 한국과 루마니아의 우정을 상징하는 퍼포먼스였다. 그들은 이것을 이해했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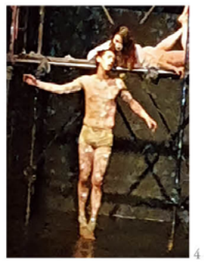
공연이 끝난 후, 극평을 듣는 일이 무척 행복했다. 그들은 놀랍다는 말과 함께 배우의 움직임과 연기에 대해 찬사를 끊임없이 쏟아냈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작품이 의도하는 바를 완벽하게 꿰고 있었다는 것이다. 신체극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모든 것이 표현되며 때로는 상징이나 은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석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신체극을 만들 때 항상 주의하는 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루마니아의 관객들은 주제를 정확하게 인지했고, 의도하는 바 상징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했다. 사실 한국의 관객들은 신기해하면서도 낯설기 때문에 신체극을 부담스럽거나 어려워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다양한 극양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몸이나 오브제로 만든 실험적인 공연을 보는 일에 익숙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예술가들을 존경해 마지않는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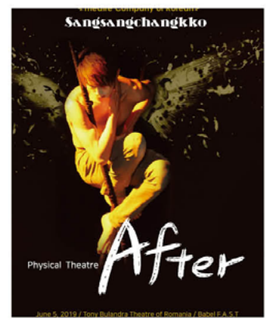
3


4

우리는 이틀을 보내고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호평 덕분인지 그저 행복한 귀향이었다. 다들 집으로 돌아간 새벽, 우리 팀에게 상이 주어졌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고 온 하루를 그 소식을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우리를 대신해 루마니아 관계자가 대리 수상했다는 상의 행방은 묘연했고 어떤 분야의 상을 받았는지 몰라 애를 태웠다. 나중에 경남도민일보 기자들을 통해 수상 내역을 입수했다. 단체상인 무대미학상이었다.

배우들의 움직임과 오브제, 영상, 조명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이미지와 볼거리를 재현해서 주는 상이었다. 올해의 페스티벌의 주제가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 상은 매우 의미가 깊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쁠 뿐이었다.

사실 연극계 현실은 아직 열악하다. 더군다나 지방이기 때문에 더 힘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는 관객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얻고 정진한다. 경남메세나협회와 결연기업인 ㈜범한산업 대표님께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극단 〈상상창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관객과 더 잘 만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5

1___ 관객과의 만남
2___ 축제에 참여한 루마니아 학생들
3___ 2019 바벨 국제공연예술제 홍보물
4___ 토니 불란드라 극장에서 공연모습
5___ After 포스터

청년예술路-소통
경남청년예술인
파견지원사업



경남 청년예술인들과의
진솔한 대담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피아니스트, 클라리네티스트, 무용가 그리고 글과 그림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작가. 이들이 기업 사무실 한편에 자리 잡았다. 기업과 예술인이 예술적 영감을 주고받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청년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예술인 5인을 만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용어 정리

예술인 파견지원 :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2019년 신규 사업으로,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예술인을 기업(기관)에 매칭·파견하여 예술적 협업을 통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예술인 복지제도.

퍼실리테이터 : 예술인-기업 매칭 프로젝트 운영하고 둘 사이의 소통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참여예술인 : 참여기업(기관)과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예술인이다.

노경무: 안녕하세요. 〈경남청년예술인 파견지원-청년예술路-소통〉 사업에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고 있는 노경무라고 합니다. 더운 날씨에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오늘은 본 사업에 대한 의견, 그리고 지역의 청년 예술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할게요.



퍼실리테이터
노경무(이하 '노')

일러스트레이터 겸 여행작가입니다. 경남메세나협회, 창원도시재생센터, 디자인바오에서 퍼실리테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퍼실리테이터
김성빈(이하 '김')

저도 퍼실리테이터이고, 클라리넷 전공입니다. BNK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 진해희망의 집, 녹색농촌체험마을 파견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술인
신소빈(이하 '신')

무용 전공입니다. 창원도시재생센터 충무지구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진해 살롱 기획에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참여예술인
한예란(이하 '한')

피아니스트입니다. 공연 기획자도 겸하고요. 경남메세나협회의 일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참여예술인
황정민(이하 '황')

디자인바오에 파견된 무용가입니다. 창동 상인을 위한 건강 체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노: 소개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해 볼게요.

예술인 파견사업 3개월 차.

노: 아직 얼마 안 되긴 했지만, 파견 후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신: 지난달 말에 첫 진해살롱을 열었었는데요. 지역 문화 발전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예상 인원보다 훨씬 많이 오셔서 발 디딜 틈도 없었어요.

황: 저는 건강 체조 영상을 시험 삼아 찍어봤는데, 배경음악이 아모르파티라서 다들 좋아하세요.

노: 아 저도 그때 같이 있었는데 동작도 쉬워서 흥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웃음)

김: 저는 요즘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거제에 가고 있어요.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원래는 미술 쪽 예술인을 원했는데 무용인이 파견되어서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계속해서 파견된 예술인이 춤 이외에 다른 콘텐츠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방문객들에게 정말 다양한 문화 예술 체험을 제공해주고 계셔서 기관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또 이 사업으로 알게 된 인연을 통해 예술인이 다른 일을 제안받기도 하셨고요.

신: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되는 이상적인 사례네요. 사실 저도 기관에서 희망하는 분야의 예술인이 아니었던 터라 더 공감이 가요.

노: 정말 잘 풀린 케이스네요. 사실, 이번 예술인-기업(기관) 매칭 과정을 돌이켜보면 다소 일방적인 시스템이었어요. 기업(기관)이 하려는 사업은 정해져 있고 그들이 거기에 적합한 예술인을 선택하게 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원하는 예술인을 배정받지 못했다고 사업을 포기하는 기관도 있었고요. 추구하는 방향이 정반대만 아니라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데도 말이죠. 예술인을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대하지 않도록 기업(기관)과 진흥원 사이의 소통이 필요한 듯합니다.

황: 아, 이건 다른 이야긴데, 저는 보고서 사진을 찍는 게 부담스러워요.

(모두 공감한다는 듯이 박장대소했다.)



한: 단순히 사진 찍는 게 귀찮다기보다, 저희가 느끼는 성과에 대한 부담의 단적인 예가 바로 '사진'인 것 같아요. 사실, 예술인의 업무가 어떤 결과물이 매일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진이 첨부된 일일 보고서를 요구하는 진흥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요.

황: 그리고 보고서에 기업 분들의 서명을 받는 절차 자체가 수직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실제 기업 분들은 저희를 굉장히 동등하게 대해주셔서 제가 사소한 아이디어도 잘 내는 편안한 분위긴데, 사인을 받을 때마다 기업이 예술인을 관리 감독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서로 민망해요.

예술인과 기업은 물과 기름?

노: 그러면 기업(기관)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김: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예술인은 그 정반대에 있는 입장이라 두 집단이 만나면 소통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이건 정말 편견에 불과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정민씨 말대로 기관 분들이 생각보다 예술인들을 배려해주셔서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구나 싶었어요. 부딪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고요.



한: 저는 어려운 점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얻어 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파견된 경남메세나협회는 예술인과 기업을 매개하는 기관이다 보니 더 그래요. 문화예술 이벤트를 기획, 진행하고 또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들을 처리하는 것들을 이곳에서 배우니 나중에 저 혼자 공연 기획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 도시재생센터에 파견되었을 때 걱정이 많았어요. 도시재생과 무용을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충무지구에 처음 갔을 때도 딱딱한 사무실 분위기에 주눅이 들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거듭해서 만날수록 생각이 달라졌어요. 서로를 얼마나 배려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기관)들이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우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마찰이 없는 것 같아요. 공익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잖아요. 자본주의 논리구조로만 움직이는 큰 기업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 같아요. 그들에게 예술인 파견 사업은 솔직히 말해서 '돈 안 드는 추가 업무'로 여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영리기업들에게서 예술을 통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 파견사업의 본래의 취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김: 동감해요. 마찰이 없어서 편하긴 한데, 동시에 그것이 불안 요소가 되기도 해요. 잡음이 있는 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많은 선례를 남겨놓으면 다음 해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이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점점 발전해나갈 테니까요.

경남청년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청년예술路-소통

우선은 기업(기관)이 예술인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언급한 녹색농촌 체험마을처럼... 그러면 기업(기관)은 다음에 진흥원의 매개 없이도 예술인을 찾겠죠.

청년 예술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 만약에 우리가 대기업에 파견되어서 지향하는 바를 이루고자 한다면 저희의 개인적인 역량을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련한 예술인이 기업에 들어가도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시키기 어렵잖아요. 저희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이 배워야겠죠.

김: 지금 당장은 청년 예술인이 기업(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술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있도록 국가의 정책적인 도움이 필수적이지요. 대신에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각각의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명의 청년예술인들이 단체로 기업(기관)과 협업한다면 좀 더 나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봐요. 집단 지성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퍼실리테이터도 매개자로서 의미를 더 찾을 수 있고요.

신: 네. 제가 한국복지재단에서 한 파견사업을 통해서 다른 장르의 예술인들과 함께 기업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요. 매우 새롭고 좋았어요. 예술인 개인으로서도 성장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황: 이런저런 아쉬운 점들을 얘기하긴 했지만, 우리의 역량을 펼치고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를 얻게 되어서 좋아요. 또 저라는 예술인을 많은 사람에게 소개할 수도 있고요.

노: 그리고 이번 파견사업이 아니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나눌 생각조차 못 했을 거예요. 한 기업 안에서 만나진 못했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 예술인 사이의 관계망도 형성된 것 같아요. 동지가 생긴 느낌이에요.







김: 경쟁률이 심해지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예술인이 신청하셔서 이 사업의 양과 질 모두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있어도 예술인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한: 혹은 알아도 절차가 복잡해서 단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에 가면 코디네이터가 있듯이 그런 예술인들을 도와주는 문화예술 분야의 기획자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청년 예술인이 바라는 사회

황: 예술인들에게 그런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체계적인 보고서를 쓰는 요령, 혹은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법 등이요.

노: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서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술가들이 잘 쓰인 글이 아니라 그들의 작업으로써 어필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신: 양쪽이 모두 변해야죠. 예술인은 행정 친화적으로, 행정은 예술 친화적으로.

황: 요 근래 3·15아트센터에 유명 뮤지컬을 보러 갔었는데 그 어떤 지역 공연장에서도 본 적이 없는 인파에 깜짝 놀랐어요. 지역 분들이 퀄리티 높은 예술적 경험에 목말라하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들에게 질 좋은 공연, 전시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시·도의 자본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사실 도내에 공연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미지수예요. 또, 사립교향악단 같은 곳에서 높은 질의 공연을 무료로 제공하니까 작은 청년 단체가 설자리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노: 우리가 향유하는 예술적 경험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여기저기 넘쳐나는 무료 공연, 무료 체험과 같은 현수막이 달갑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에요.

황: 그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지역 예술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신: 그러려면 적극적인 홍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무용 공연을 지역 라디오에 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피드백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역시 개인이 혼자 그런 홍보를 하기는 힘들죠.

김: 또 이야기가 정책적인 지원으로 돌아오네요. 어느 한쪽만 잘해서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어요. 서로 노력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죠.

노: 동감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거의 다 나온 것 같네요. 올해 겨울 이 사업이 완료될 즈음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한 번 더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양
- 남계서원 -

매미가 맵다울고
쓰르라미 쓰다 우네,
산나물이 맵다는가
맛없는 술이 쓰다는가
우리는 초야에 묻혀있으니
맵고 쓴 줄 모른다

작가 미상





2019년 7월, 함양 남계서원은 성리학의 전파에 이바지한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그림1〉 피항(避港)/ 캔버스에 유채/ 197×335cm/ 1995

〈존재자〉로서의 〈존재〉찾기 - 故현재호

그 끝없는 갈망에 대한 슬프고도 아름다운 유희들

현재호 *1935~2004*
1958년 단체전을 시작으로 작가 활동을 하였고, 1975년 첫 전시 오픈. 1996년까지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회원전을 열었다.

그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냐고.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의 존재자(seiendes)[1] 일 뿐이라고.
그렇기에 나는 갈구하고, 그렇기에 나는 그린다고.
그것은 내 존재(sein)[2] 에 대한 '존재자'로서의 행위이며,
내 존재를 존재하게 한 또 다른 존재에 대한
현존재(dasein)[3] 찾기인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체 없는 형체를 통해, 기형 아닌 기형을 통해.
뭉툭한 코, 함지박 같은 손과 발, 풍만한 젖가슴을 통해.
그가 우리에게 우리들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 존재하는가?〉
웃는 듯 우는 듯. 행복한 듯 괴로운 듯.
춤추는 듯 절규하는 듯(그림2),
그의 그림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의 그림은 …

그의 "존재찾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의 음악은 단 한 번도 연주된 적이 없으며,
그의 연주는 단 한 번도 소리 내어 본 적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숱한 '존재자'들은 제각기 그들의
나발을 불어대고 북을 치고 건반을 두드려 보지만(그림1)
그들의 소리는 단 한 번도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는 것
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존재자'들은 그저
'타인의 요구에 종속되어 존재'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들의 연주 또한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존재〉일 뿐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그의 연주는 소리 내어도 소리 난 적 없으며,
그의 음악은 연주되어도 연주되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음악은 은하계보다 더 먼 우주로
부터 들려오기도 하고, 끝없는 심연의 바다 밑 용궁
으로부터 들려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복한 꿈을 꿉니다(그림3).
우리들은 그 꿈속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나의 '존재'
를 만나기도 하고, 그 꿈속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잃어
버린 우리의 '존재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웃는 듯,
행복한 듯, 진짜인 듯, 가짜인 듯.

태어난 직후부터 어머니의 부재와 함께 시작된
작가의 삶은 어쩌면 나는 어디에 있냐고 묻고 묻는
'존재'에 대한 끝없는 질문과 대답이었는지도 모르겠습
니다. 조국을 잃어버린 일제 치하에서 당시 나이 겨우
2살 밖에 되지 않았던 작가는 26살이나 차이 나는
누나의 손에 이끌려 만주와 북경, 대련, 상해 등을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 "
> 그대 혹시 내 〈존재〉를 '존재'하게 한
> 또 다른 내 〈존재자〉를 보셨는지요?
> 그리고 그는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 〈나는 과연 존재하는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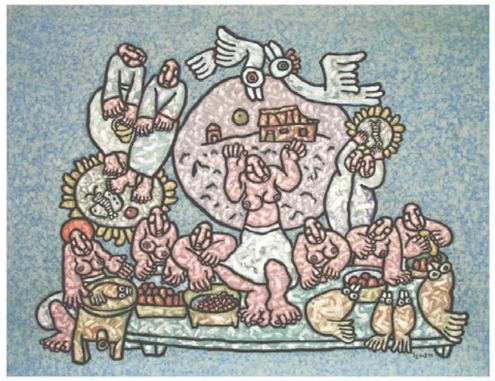
〈그림2〉 무제/ 캔버스에 유채/ 116×91cm/ 1996

그리고 열 살 무렵, 해방과 함께 아버지가 살고
계시던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그 아버지마저
곧바로 저 세상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분명히 존재(seiendes)했지만 세상 어디에
도 존재(sein)하지 못했던 그의 '현존재'는 그가
〈부재의 존재〉와 〈존재자로서의 존재〉 사이에서
겪어야만 했던 〈참담한 실재〉이었을 것입니다.

그 혼돈과 방황이 스무 살의 그를
〈그림이라는 존재자 찾기〉와 〈존재자로서의 존재
그리기〉로 내몰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초기 작품들은 프란시스 베이컨의
'삼면화 시리즈'를 생각나게 합니다.
뒤틀릴 대로 뒤틀린 눈과 귀.
해체될 대로 해체되어 버린 입과 코.
마치 괴물의 얼굴처럼 일그러져버린
베이컨의 인간처럼, 그의 노래는 인간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림3〉 무제/ 캔버스에 유채/ 91×116cm/ 1992





〈그림4〉 무제/ 캔버스에 유채/ 112×145cm/ 1995

〈존재자〉로서의 〈존재〉찾기

그러나 그의 〈존재찾기〉는 점차 가난과 고독, 방랑의 체험에서 내어놓은 점액질을 통해
"어떤 것이든 끌어안으려는 몸짓"으로 승화되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5] 그리고 그는 다시 노래합니다.
부재하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를 … 그리움으로 가득 찬 '존재자'의 부재함을 …
춤추듯 노래합니다. 노래하듯 춤춥니다(그림4).

진정 나의 '존재'는 존재하는가? 그리고 나를 존재하게 한 그 '존재'는 어떤 '존재자'인가?
갈라지고 부르터진 손. 시리고 부어오른 발. 이미 오랫동안 굳어져버린 듯한 입과 감겨져버린 눈. 그의 '존재자'는
그렇게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차단되고 분리되어진 채, 누구도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자신만의 웅얼거림으로
"존재찾기" 여행을 떠납니다. 좌판을 벌리고 시린 바닷바람을 맞으며 먼– 먼– '존재'의 세상으로부터 들려올 '존재자'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춤을 추듯, 장사하듯,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무겁고 힘든 갈망의 보따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너머로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노래. 처절하면서도 즐거운 듯 한 노래.
들릴 듯 하면서도 들리지 않을 듯 들려오는 그의 노래가 우리를 조용히 불러 세웁니다.

〈아–! 어·머·니!〉

한 번만이라도, 오직 한 번만이라도.
부르고 또 불러보고 싶었을 그 이름은
그의 노래가 되었고, 그의 그림이 되었으며,
그의 생명이 되었고, 그의 희망이 되었으며,
그의 기쁨이 되었고, 그의 절망, 그의 춤,
그의 유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또 노래합니다. 끝없이 끝없이.
그를 버린 그의 〈존재〉를 향해.
그를 낳고 그를 존재하게 한 간절한 그리움을 향해.
아득하고 간절한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절절하고 애틋한 갈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마침내 그의 노래는 천상을 가득 메우고 땅과
바다를 가득 메웁니다(그림5).

춤추듯 흐느끼듯, 끝없는 갈망으로 몸부림치는
그의 유희는 아득한 천상을 돌고 돌아
지금, 여기, 우리에게 묻습니다(그림6).
그대 혹시 나의 〈존재〉를 보셨는지요?
아니, 그대 혹시 내 〈존재〉를 '존재' 하게 한
또 다른 내 〈존재자〉를 보셨는지요?
그리고 그는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과연 존재하는가?〉
아니! 〈너는 과연 존재하는가?〉라고.



〈그림5〉 무제/ 캔버스에 유채/ 90×90cm/ 1994



〈그림6〉 무제/ 캔버스에 유채/ 116×91cm/ 1996

〈참고〉
1, 2, 3 : 철학자 하이데거(1889~1976)에 의하면 존재(sein)란 어떤 것의 '있음', 즉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존재자(seiendes)란 그 존재로 인하여 '있게 되는 그 무엇'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 존재자란 '존재의 실현'일 뿐이며, 사람들이 존재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존재(sein)'가 아니라 존재하는 어떤 것, 즉 '존재자(seiendes)'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존재는 자신을 드러낼 특정한 장소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실현되어 특정한 형태를 갖는 존재자가 되며 이처럼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현존재(dasein)'라고 하였다.

4 : 하이데거 (1927), 〈존재와 시간〉 김동수 (20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 재인용

5 : 정목일 (1992), 이달에 만난 작가/인간+예술(현재호). 〈미술세계〉 7월호. 120-123.

현 재 호展 | 2019. 8. 13 ~ 9. 15 관람시간 오후 1:00 ~ 오후 8:00 | 금강미술관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10길 79

글_그림_bao

경남아트힐링지도

art-spot 055

아트
스팟055

멀고도 어려운 예술? 여기, 일상 속에서 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공공 문화시설부터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문화복합공간까지. 경남의 예술스팟을 찾아 가보자.

미술
문학
음악
카페
연극

01 봄날의 책방
경남 통영시 봉수1길 6-1
055-225-7181

02 바람흔적미술관
경남 남해군 삼동면 금암로 519-4
010-3542-3034(남해)
경남 합천군 가회면 중촌리 216-3

03 만초집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남로 14
055- 246-3432

04 레트로봉황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283번길 11
010-8054-8054

05 space NAMU
경남 양산시 하북면 충렬로 1733
055-374-3500

06 카페 정미소
경남 사천시 진삼로 150
055-834-1474

07 루시다
경남 진주시 망경북길 38
055-759-7165

08 공간EASY
경남 김해시 내외중앙로 35
아카데미빌딩 4층 / 055-723-2284

09 돌창고 프로젝트
경남 남해군 삼동면 봉화로 538
경남 남해군 서면 스포츠로 487
055-867-1965 / 055-863-1965

10 바래길 작은미술관
경남 남해군 남면 남면로1739번길 46-1
055-352-1835

11 그림갤러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4
장원빌딩 3층 / 055-243-0999

12 오누이북앤샵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333번길
28 1층점포 / 010-6811-8921

13 우주미술관
경남 사천시 정동면 사천강1길 3 1층
055-855-0612

14 갤러리디엠
경남 창녕군 부곡면 온천중앙로42
010-7376-1289

15 마산조각공원 & 마산음악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2길 35
055-225-7193

16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경남 밀양시 부북면 창밀로 3097-16
밀양연극촌 / 055-359-5633

17 리미술관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읍내로 52
055-835-2015

18 갤러리 지두
경남 거제시 거제면 거제남서로
4322 / 055-633-1862

19 명배우 봉하극장 콜로노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1로56번길 30
055-345-0776

20 남해예술창작스튜디오 해오름예술촌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565-4
055-867-0706

2019 경남메세나협회 정기이사회/정기총회



경남메세나협회는 2월 26일 호텔 인터내셔널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회의 전년도 사업결과 보고와 더불어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예산을 확정하고 신임 임원을 선임했다.

Mecenat News

사업결과 보고에 따르면 2018년 협회는 중소기업 131개 팀, 대기업 31개 팀으로 총 162개 기업-예술단체 결연을 달성하여 6년 연속 100개 팀 이상 결연성과와 동시에 작년도에 세운 목표인 누적 결연팀 1,000개 팀, 누적 지원금 20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경상남도와 함께하는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이 2008년 첫 시행 이후 매년 증가세에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황윤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8년도 경남메세나협회의 값진 성과들은 도내 기업인들의 문화예술 사랑과 참된 후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경제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사회에 위안을 주고 행복을 전하는 문화예술의 역할은 더 커진다"면서 문화예술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격려했다. 협회는 2019년도에도 결연사업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고, 창원시와 김해시에 이어 경남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남 전 지역의예술단체들에게 고루 힘을 실어주고 시·군 곳곳의 지역민들이 편중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메세나가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임원선임이 이루어졌다. 회장에는 BNK경남은행 황윤철 행장이 유임하였으며, 부회장에는 ㈜인산가 김윤세 회장, ㈜화인테크놀리지 서영옥 대표이사, 우수AMS㈜ 전종인 회장, 경남오페라단 정찬희 단장이, 이사에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고승하 전(前)이사장과 창원대학교 음악과 김도기 교수, ㈜리베라관광개발 김태명 회장, 산청양계영농조합법인 이상호 회장이 유임했다. 이 밖에도 부회장직에 BNK경남은행 유충렬 부행장이 교체 선임되었으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남지회 조보현 회장과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 류명현 국장은 이사로 교체 선임되었다. 신임 감사로는 ㈜정일 박종춘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앞으로 경남지역 메세나 활동을 선도하게 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문화예술 공연도 풍성하게 펼쳐졌다. 축하공연 무대에는 '인간문화재 손녀'로 다수의 음악방송에 출연하여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전한 소리꾼 정소리씨가 국악인인 부모님과 함께 윤복희의 '여러분'을 국악버전으로 재해석하여 부르는 등 특별한 무대를 선보였다. 이어 경남의 실력파 연주자들로 구성된 경남솔로이스츠앙상블이 섬세한 현악 앙상블 연주로 2019년도 경남메세나협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경남메세나협회 예술단체 워크숍



중소기업 매칭펀드
사업 참여 115개 예술단체
대상 워크숍 개최

Mecenat News

경남메세나협회는 지난 4월 30일 경남도립미술관 다목적 홀에서 2019년도 중소기업 매칭펀드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단체 대표자들과 '2019 예술단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3월 28일 열린 2019년도 매칭펀드 사업 제1차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총 118개의 기업이 115개 지역 예술단체들과 결연을 맺게 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선정된 예술단체들의 원활한 사업진행과 자금집행 그리고 투명한 정산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송리 주무관이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효율적인 정산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하선주 경남메세나협회 사무국장이 중소기업 매칭펀드 사업의 전반적인 안내와 지원금 정산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경남도와 협회는 지원금 집행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업과 예술단체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메세나 사업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예술단체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는 신규 결연단체의 비중이 예년에 비해 높아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한 각 단체별 맞춤형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날 워크숍에는 설원지 학예연구사가 참여하여 기업과 예술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인 경남도립미술관 아웃리치 프로그램 〈아트누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김정희 과장은 경남 예술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복지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기업-예술단체 우수 교류사례 발표는 통영옻칠미술관 정둘선 실장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통영옻칠미술관은 2008년 경남자동차판매㈜와 매칭펀드 결연을 맺고 11년째 그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통영옻칠미술관은 작가들의 열정과 기업의 적극적인 후원을 바탕으로 옻칠회화의 현대화 및 세계화를 이루어냈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 올해는 베트남 하노이 국립문화예술연구원 아트스튜디오(VICAS)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여 옻칠의 우아한 매력을 알렸다.

경남메세나협회는 도내 예술단체들을 대상으로 매년 예술단체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안내, 재원조성 및 정산보고 등 다양한 실무교육을 통해 예술단체의 운영 및 행정능력과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다. 2019년도 제2차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에 선정된 예술단체들은 개별적으로 협회 사무국을 방문하면 사업 진행 및 정산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Mecenat News

경남메세나협회 임원간담회



지난 6월 12일, 여름의 문턱에서 경남메세나협회 임원진들이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내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모였다.



이 날 간담회에는 황윤철 경남메세나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센트랄 강상우 사장, ㈜인산가 김윤세 회장, ㈜화인테크놀리지 서영욱 대표이사, BNK경남은행 유충렬 부행장, ㈜무학 이수능 대표이사, 우수AMS㈜ 전종인 회장, ㈜정일 박종춘 대표이사, 청호산업㈜ 이동기 회장, 경원벤텍㈜ 공경열 대표이사, 김도기 창원대학교 교수, ㈜리베라관광개발 김태명 회장,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 류명현 국장, 고성오광대 이윤석 회장, 경남예총 조보현 회장, 원광건설㈜ 조성제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협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류명현 국장은 경남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협회 임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한 협회의 주력 사업인 중소기업 매칭펀드의 매칭비율을 1:1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임원진들은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의 정례화, 전문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방안, 우수 메세나 활동 기업 홍보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이번 임원간담회는 창원시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클라우드 아트홀(시티세븐 43층 위치)에서 개최되어 특별함을 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원들은 장소가 참 아름답다며 탁 트인 전경을 배경으로 서로 마주하니 더욱 즐겁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간담회가 끝나고 임원진들은 아트홀에 전시된 미술 작품들을 감상하고 LP 레코드의 아날로그 음악을 들으며 예술과 낭만이 흐르는 시간을 보냈다.

Mecenat News

전국 메세나단체 경남 워크숍 개최



메세나 활동의 전국적 활성화와 지역 메세나단체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2019 전국 메세나단체 경남 워크숍이 지난 7월 12일~13일 이틀간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메세나협회, 경남메세나협회, 제주메세나협회 그리고 대구메세나협의회의 실무진들이 참석하여 각 단체의 운영 현황 및 사업 현안을 공유하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안하였다.

한국메세나협회는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한 문화 접대비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기업과 협력하는 문화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업을 다수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GS칼텍스와 함께 취업준비생을 위한 예술힐링 캠프 〈취준 동고동락(同苦同樂)〉를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문화예술의 에너지가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제주메세나협회는 3년차에 접어든 〈찾아가는 공연장 제주in(人) 도르라트럭〉이 점점 자리를 잡고 도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도르라트럭은 제주 청년아티스트들의 열정을 싣고 제주 전역을 누비는 자체제작 트레일러다. 대구메세나협의회는 대명아트로드명소화사업, 희망인재프로젝트 등 지역특성화매칭펀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발전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각 단체들은 지역 특성에 맞춘 사업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메세나 활동의 지역 활성화와 전국적 확산을 위하여 '메세나 전국 네트워크' 출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메세나 전국 네트워크가 출범하면 일부 지역의 개별적인 예술후원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메세나 운동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3 경남메세나 예술영재 유채연, 프라하를 감동시키다

Mecenat News





플루티스트 유채연

2011	취미로 플루트를 배우는 어머니를 따라 입문
2012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 입단
2013	경남메세나협회 문화예술영재상 TBC 음악콩쿠르 초등부 1위
2014	음악저널 전국음악콩쿠르 중등부 1위 젊은이의 음악제
2015	이화경향음악콩쿠르 중등부 2위 코리아헤럴드 음악콩쿠르 중등부 1위
2017	서울대학교 관악 동문회 주최 전국 초중고등학교 관악실기 경연대회 고등부 1위 KT 장학생 선정
2018	한국예술종학합교 음악원 입학 금호 영아티스트 콘서트
2019	프라하의 봄 콩쿠르 – 플루트 부문 1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의 유채연(18)양이 제71회 프라하의 봄 콩쿠르에서 플루트 부문에서 1위로 입상하였다. 유채연양은 상금 20만 코루나(약 1천40만 원)와 내년 프라하 봄 국제 음악 페스티벌 연주 기회를 갖게 되었다. 프라하의 봄 콩쿠르는 1974년 시작된 유서 깊은 음악제로, 30세 이하의 젊은 음악인 발굴을 위해 매년 개최된다. 유채연양의 이번 수상은 관악기 부문 순수 국내파 첫 메이저 국제 콩쿠르 우승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유채연양은 또래보다 조금 늦게 플루트를 시작했지만 초등 6학년 때부터 전국 콩쿠르 입상을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남다른 천재성을 보였다. 손이 굳을까봐 수학여행을 포기할 만큼 어릴 적부터 플루트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다. 창원 호계초등학교 6학년 재학 당시 2013 경남메세나대회 문화예술영재로 선정되어 메세나 기업인들과 예술인들 앞에서 헝가리의 민속 무곡 Czardas(차르다시)를 연주한 바 있다. 당시 유채연양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자신의 입과 연결되어 몸의 일부에서 소리가 나는 듯하다.'라고 스스로 플루트의 매력을 설명하기도 했다.

유채연양의 이력을 살펴보면, 그의 쾌거 뒤에는 개인의 피나는 노력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의 후원이 뒤따라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2008년부터 잠재력을 갖춘 청소년들을 문화예술영재로 선정하여 장학금을 수여해왔다. 그 수상자는 지금까지 총 22명에 이른다. 현재 이 영재들은 훌륭한 예술인으로 성장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예술꿈나무를 발굴하고 후원하는 일은 지역 예술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다. 이 초석은 개인의 영광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후배 청소년들에게도 꿈을 향해 나아갈 힘과 용기를 가져다준다.

유채연양의 이번 수상은 기업의 메세나 활동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주목받는 예술 영재가 성인 예술인으로 온전히 성장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들의 꿈이 도중에 꺾이지 않도록 기업의 지속적인 후원, 그리고 사회 전체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즐거운 나눔티켓

김해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한
신나는 뮤지컬 관람!



Mecenat News

경남 메세나 협의회는 지역민들이 우수한 문화예술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티켓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김해서부문화센터와 협업하여 130여 명의 다문화 가정 및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뮤지컬 티켓을 배부하였고 공연 관람의 즐거움을 함께 나눴다.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5월, 김해 지역 아동들이 색다른 봄나들이를 나섰다. 올해 '즐거운 나눔티켓' 사업은 김해서부문화센터 공연기획팀과 공동으로 추진되어 김해지역의 다문화 가정 아동 및 문화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뮤지컬 관람의 기회를 제공했다.

함께 관람한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분단의 아픔을 코믹하면서도 휴머니즘적으로 풀어낸 웰메이드 창작뮤지컬이다. 2019년 전국투어의 첫 공연이 5월 김해서부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티켓 나눔 사업은 다문화 가정 및 소외계층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토록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어린이들은 이번 뮤지컬 관람을 통해 연기, 노래, 춤이 종합된 예술 형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분단의 아픔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이번 티켓 배부대상은 가야 지역아동센터, 꿈샘 지역아동센터, 진영 대창 초등학교, 세바키 지역 아동센터, 플러스하트 리더스쿨 지역아동센터, 장유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어린이들로 약 130명에 달한다.

경남메세나협회의 나눔티켓사업은 아동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외계층 누구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페라, 뮤지컬, 음악회, 연극, 전시 등 더욱 폭넓은 문화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사업을 기획중이다. 나아가 도민 누구나 문화 예술을 가까이 하고 즐기는 '문화경남'을 이루는 날까지 나눔티켓은 계속될 예정이다.

북한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궁금하고,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_ 세바키 지역아동센터

조국을 향한 마음은 같은데 남북으로
나뉘어 있는 게 너무 슬펐어요.
_플러스 하트 리더스쿨 지역아동센터

저도 뮤지컬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_장유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분단의 상황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_꿈샘 지역아동센터 김진경

1



GIAF
Gyeongnam International Art Fair

2

3

제10회 경남국제아트페어(GIAF)가
'일상 속에 예술이 스며들다'를 주제로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2019 경남국제아트페어 결산

일상 속에 예술이 스며들다

경남 유일의 아트페어로 도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과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경남도지회와 창원컨벤션센터가 주관하는 경남국제아트페어는 10주년을 맞아 더욱 특별한 기획으로 미술 애호가들을 맞이했다.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칠레, 중국, 일본 등 국내외 70여 개 유수의 갤러리들이 참가해 회화, 조각, 영상, 설치, 판화, 사진 등 미술 전체 장르의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갤러리들은 15만 원에서부터 최고 2억 원에 이르는 다양한 규모의 작품들을 선보였다. 녹록지 않은 경제 사정이 반영된 듯 작품 판매는 20만~100만 원 사이의 소품 위주로 이루어졌지만, 판매액 2억 5천만 원 달성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경남국제아트페어는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서양미술의 거장 작품을 판화로 만날 수 있는 특별전 〈샤갈, 피카소, 달리 그리고 앤디 워홀展〉을 기획했다. 색채의 마술사 마르크 샤갈, 초현실주의 거장 살바도르 달리, 팝아트의 제왕 앤디 워홀, 천재 화가 피카소의 작품들은 관객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이 밖에도 〈경남 미술의 역사展〉을 통해 문신, 전혁림, 하인두, 박생광, 이준 작가 등 경남 미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작품을 볼 수 있었다. 서양 근현대 미술과 경남 근현대 미술을 한자리에서 직접 비교하며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고정수 조각가의 〈공기 조형물展〉도 눈길을 끌었다. 제12회 문신미술상 본상 수상자로 평단과 대중의 인정을 동시에 받은 고정수 작가는 '곰'을 모티브로 한 형상에 공기를 주입하여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조형물을 선보였다.

주말을 맞아 아트페어를 찾은 6천여 명의 관람객들은 공기 조형물을 포토존 삼아 인증샷을 남기는 등 추억을 만들었다.



4



5



6



7

1 고정수 조각가의 공기 조형물
2, 3 공기 조형물 설명
4, 5 아트페어 관람 모습
6, 7 피카소 판화 작품과 인증서

글_정민주 사진_TIMF 기획팀



재즈로 물든

통영의 밤

통영국제음악재단

ARTE JAZZ NIGHT 리뷰

큰일 났다. 빠지면 답도 없다는 재즈의 맛을 알아버렸다. 6월 7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린 '아르테 재즈나이트'에서 말이다. 비가 운치 있게 내리던 금요일 오후, 창원에서 한 시간을 내달려 통영에 도착했다. 그곳은 지친 일상을 피로를 날려줄 환상의 '라라랜드'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재즈' 하면 분위기 좋은 바에서 비싼 와인을 곁들이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이러한 선입견은 '재즈는 어려운 음악'이라는 편견을 낳았다. 그러나 재즈의 DNA를 알고 나면 탑쉐프의 레스토랑보다 골목식당에 더 가깝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주인장이 있는 재료로 뚝딱 맛 좋은 음식을 만들어 내듯 개성 있는 연주자들이 즉흥으로 재즈의 선율을 이루기 때문이다.

재즈는 미국 뉴올리언스의 흑인 브라스밴드에서 생겨났다. 핍박받던 흑인들의 위로가 되어주던 음악으로, 격식 차린 음악이 아니었다. 재즈는 관악기 위주의 구성으로 불규칙한 리듬, 자유로운 즉흥연주 등이 특징이어서 문화권이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접근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자주 오고 싶은데, 볼 기회가 잘 없다.
공연을 보니 힐링되는 것 같다

_ 통영의 한 직장인

43번째 공연을 맞은 아르테 재즈나이트의 시작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큰 공연이나 기획행사가 있을 때를 제외하면 음악당 내 레스토랑 '뜨라토리아 델 아르테'에서 매달 1회 열리고 있다. 클래식 전용 홀이 있는 음악당 레스토랑에서 재즈 공연을 연다니, 계기가 궁금했다. 통영국제음악재단 플로리안 리임 대표는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명료하게 답했다. 아마도 대중적으로 다가갈 콘텐츠로 재즈가 제격이었나 보다.



처음엔 녹록하지 않았다고 했다. 빅클럽들이 있는 서울이나 부산, 대구와 달리 통영에서 재즈는 생소한 장르이기 때문이다. 경남 유일의 라이브 재즈클럽 '뭉크'도 재정 악화로 2016년 문을 닫았다. 그러나 재단은 꾸준히 무대에 아티스트를 세웠다. 출연 뮤지션도 쟁쟁하다. 주로 서울 빅클럽이나 대중매체에 나오는 이들을 초대한다. 최근에는 입소문이 나면서 아티스트들이 먼저 요청하는 경우도 잦아졌다.

이날 공연에서는 독일 출신 드러머 마누엘 바이얀드가 주축이 된 마누엘 바이얀드 콰르텟이 무대에 올랐다. 신명섭(색소폰), 폴 커비(피아노), 김대호(베이스) 연주자들이 눈짓을 주고받더니 연주를 시작했다. 마누엘 바이얀드는 공연 중간 중간 음악 동반자들과 곡 소개를 했다. 본격적으로 공연이 시작하기 전부터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국에 온 지 6년 됐다는 마누엘 바이얀드의 유창한 한국어 실력에 놀라서다. 2시간 동안 이들은 '하드 밥 재즈'를 주제로 리드미컬한 선율을 선사했다.

친구와 부부, 커플, 가족 등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보였다. 처음엔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 듣듯 경직된 표정으로 공연을 관람하던 이들은 이내 발로 박자를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음악을 즐겼다. 연주자들이 쏟아낸 음표들은 연신 빗방울이 되어 창가에 흘러내렸다.

뮤지션들의 수준이 높아서
이번 달 다시 통영을 찾았다

_ 전남 광양에서 부터 먼길을 달려온 커플

이 공연을 담당하는 기획팀 이소염 대리는 "수익은 거의 없지만 지역에서 이런 형태의 공연을 주기적으로 꾸리는 것도 재단의 역할이다."며 "처음엔 관객이 적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거의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연주자들은 "유명 클럽보다 객석의 분위기나 집중도가 좋아 감명 깊은 무대였다."며 "기분 좋고 행복하게 연주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분 좋은 드라이브와 감미로운 재즈 선율, 맛있는 음식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가성비 갑(甲)', '혜자스러운(?)' 공연이었다. 다이내믹한 선율이 흐르는 공연 내내 시원한 맥주가 아른거린다. '아르테 재즈나이트'나 여름에 진행되는 '재즈 웨이브'를 찾을 예정이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술을 좋아하지 않는 일행과 동행하길 권한다.

문화도시 상하이

Cultural City
Shanghai

2019년. 올해만큼 한국 근대사에 대한 재해석의 논의가 뜨겁게 전개된 적이 있었던가? 해방공간 이전의 사실관계에 근거한 우리 현대사의 출발은 자연스럽게 상하이 임시정부의 출범을 기점으로 정하게 된다.
그 시기 중국의 입장에서도 서구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던 상하이이기에 과거와 현재가 어색하지 않게 공존하는 인구 2,400만의 이 거대도시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다.



1 티엔즈팡 거리
2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외관
3 티엔즈팡 찻집의 방명록
4 모간산루 M50

중국의 개방정책 표방 이후 국제화를 포용하고 현대화를 수용하면서 이색적이고 다채로운 문화적 분위기를 재탄생시킨 상하이는 오늘날 도시재생의 모델을 제시하고 예술도시의 상징으로 그 지평을 넓히고 있다. 살기 위한 노동의 공간이 그 수명을 다한 시점에서 창조 인력들에 의해 창조산업의 집적지는 미래 산업의 휴식처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예술 공간으로 거듭났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곳 – 티엔즈팡

상하이 임시정부청사에 근접한 낡고 허름한 건물들 사이사이 좁은 골목에서 80여 년의 세월을 간직하고 중국의 전통의상과 공예품들을 판매하는 시장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의 인사동을 연상케 하는 거리다. 그래서인지 여기서는 사람의 숨결과 정이 어우러진다. 2001년 지역정부와 주민들이 뜻을 모아 전통이 숨 쉬는 매력적인 공간을 연출하고자 노력한 결과 맥이 흐르는 이음의 거리가 되었다.

즐비한 상점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제각각의 개성을 연출하고 있으면서도 묘한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전통시장의 이미지에 걸맞은 유형의 공방 상품들은 개성미를 발휘하고 무형의 차향과 인삼은 오감을 자극하며 정으로 다가와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머물게 한다. 차 한 잔을 대접받은 훈훈한 기억은 티엔즈팡을 거닐던 추억을 소환해 다시 회향하게 만들고 사람이 모이는 곳은 저잣거리가 되고 정으로 바라보는 상품은 예술품으로 승화한다.

잿빛 공장의 이유있는 변신 – 모간산루 M50

현대 중국예술의 기류를 타고 창작의 공간지대로 부각된 상하이 모간산루 M50 지역은 베이징의 다산츠 798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곳이다. 1930년대 사업화의 열풍을 타고 황푸강 쑤저우허 남쪽에 조성된 방직공장은 중국의 대표적인 산업유산이다. 1990년대 산업구조가 전환되고 도심지역의 공업시설이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쑤저우허 연안 공업지역은 쇠퇴기를 맞이한다. 덩달아 사람들도 이곳을 벗어나게 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춘밍 방직공장의 주변 입지 여건을 읽어낸 안목은 공장 북쪽에 자리한 역사에서 내리는 승객들의 시선이 처음 머무는 우뚝 선 굴뚝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쇠망한 공업지역의 역사적 가치 보존을 위한 의지에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심미적 가치를 연결하여 역동성이라는 창작적 생산 가치를 예술적 부가가치로 승화시켜 상하이 예술문화의 랜드마크로 재탄생시켰다. 매년 300회 이상의 전시를 유치하고 20여 개국의 예술가들이 개인 아틀리에, 화랑, 예술교육 공간, 디자인 창의기업 사무실을 열어 아시아 예술시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랑인 학고재와 샘터화랑도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외형은 보존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아시아 최고의 예술시장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걸음을 성큼성큼 옮기고 있다.

젊은 예술인들의 아지트 – 홍팡

섬유산업이 평면적 분위기라면 철강산업은 매우 입체적이다. 1980년대 말까지의 철강산업을 주도했던 홍팡(레드타운)은 그 입체성을 이미지화시킨 조형물들이 많은 지역이다. 공장의 골조와 붉은 벽돌은 그대로 살려두고 벽돌과 철골로 조성한 조형물이 즐비한 공원 거리에 아인슈타인과 등소평의 두상이 조각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인공으로 조성된 조각상들과 젊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노니는 모습이 묘한 조화를 이룬다. 따뜻한 햇볕 아래 자유로이 노니는 풍경은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임을 깨우치게 만든다.







찬란하게 위대하게 – 중화예술궁

2010 상하이 엑스포를 개최했던 엑스포공원은 아시아 최대의 예술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대륙의 이미지를 과시하고 있다. 엑스포 개최 당시 중국국가관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은 중화예술궁궐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것처럼 화(華: 찬란할 화)자로 축약된 붉은 빛의 찬란한 외관을 뽐내며 일명 동방의 관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7만㎡ 규모의 실내 공간 안에는 35개의 전시공간이 들어있어 중국 미술의 영역을 뛰어넘어 세계 미술의 흐름을 가늠하는 척도의 장이 되었다. 동시에 지나치게 방대한 규모가 주는 피로감을 극복해야만 하는 부담스러운 곳이기도 하다.

1 중화예술궁
2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행위예술가
3 중국을 상징하는 성스러운 동물, 용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 – 당대예술박물관

중화예술궁에서 황푸강을 건너면 또 다른 현대미술관, 당대예술박물관이 자리한다. 미술관은 멀리서도 그 위치를 읽을 수 있다. 수명을 다 한 165m의 화력발전소 굴뚝이 현대미술의 역동성을 담고 전 세계 미술애호가들에게 마중의 손짓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현대미술축제엔 상하이 비엔날레 행사장이기도 한 이곳은 현대미술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곳이다. 현대예술은 오늘의 예술이 아니라 과거의 흔적 위에 덧칠된 진화의 과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관념 속으로 생각을 이끌며 소중하지 않은 과거는 없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이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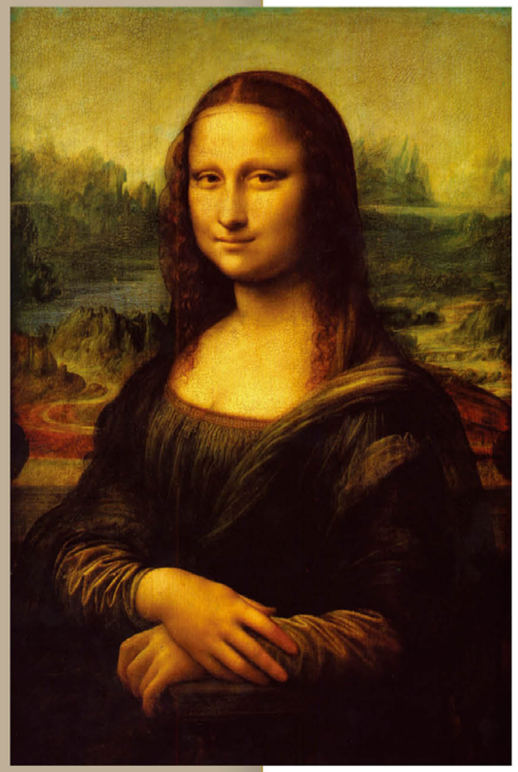
그것은 모이게 만든다.

사람을.

상해의 도시 재생이 주는 교훈은 공간 공간마다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면서 꼭 다시 찾게 된다는 것이다. 공간만 리모델링하는 도시재생이 아니라 그 도시를 살아 숨 쉬게 만드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호흡이 함께 내일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즈음에 과거청산을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본다. 부끄러운 과거는 없다. 부끄러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 속에 사람에 대한 정과 예를 다 하면 죽어가는 폐허도 생명의 터전이 된다. 한국 근현대 100년사의 숨결이 임시정부 청사의 구석 자락에서 되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과거청산이라는 불필요한 용기 앞에서 반목할 이유가 없다. 재생. 새로운 탄생. 그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사람 내음이 어우러지는 호흡의 조화에 있음을 기억하자.

신비로운
꿈꾸는 듯한 미소의
모나리자



1

이 분명한 완성작의 수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스무 점을 넘지 않는다.

레오나르도는 회화, 건축, 철학, 시, 작곡, 조각, 육상(멀리뛰기와 높이뛰기가 장기였다), 물리학, 수학, 해부학 등 다양한 분야에 능했다. 나아가 그는 여러 가지 악기(특히 류트)를 잘 다루었고 직접 악기를 만들기도 했다. 또 저명한 외국 손님을 초청해 주인의 부와 고상한 취미를 과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식 파티와 만찬회를 주관하는 솜씨도 뛰어났다. 그는 토목에도 손을 댔다. 또한 직접 수차와 수문을 만들고 방대한 영지를 관개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기도 했다. 그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비행기와 잠수함이었는데, 그것들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중기와 자동 드릴을 제작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안했다.

그러나, 시대의 거장 레오나르도의 결점은 심각한 끈기 부족이었다. 그는 대형 기마상을 만드는가 싶더니 곧바로 신형 대포를 제작해야겠다는 생각에 그 일을 옆으로 밀쳐버렸다. 또 대포는 겨우 시작했을 뿐인데 얼마 안 가 시장에서 팔리는 플랑드르 물감보다 더 나은 물감을 만들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이렇게 쉴 새 없는 두뇌 활동에 쫓겨 레오나르도는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한 경우가 드물었다. 하나의 그림을 다 끝내지 못하는 습관도 이런 성격에서 비롯됐으리라 짐작된다.

걸작의 비밀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걸작으로 꼽히는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신비스러운 〈모나리자〉의 미소는 어쩌면 레오나르도의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일지도 모르며, 〈최후의 만찬〉은 시대착오적인 템페라 기법의 소산일지도 모른다.

〈모나리자〉는 차노비 델 조콘도(Zanobi del Giocondo)의 아름다운 아내를 그린 초상이다.(그래서 그녀를 흔히 라 조콘다(La Gioconda)라고 부른다) 이 그림은 영원한 여성상의 이상적인 본보기로 꼽힌다.

꿈꾸는 듯한 부인의 미소는 완벽한 여성성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분위기를 풍긴다. 혹은 레오나르도가 입술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미소가 생겼는지도 모른다. 그는 해부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했으나 얼굴은 잘 알지 못했다.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의 조각상에서 흔히 보는 것과 같은 그 고졸한 미소는 아마 레오나르도가 까다로운 입을 그리는 데 실패한 결과일 것이다. 이유야 어쨌든 부인의 얼굴은 당시에도 비상한 인기를 끌었다.

밀라노에서 레오나르도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의 식당 벽에 〈최후의 만찬〉을 그렸다. 이 작품을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이던 프레스코 기법이 아니라 템페라 기법으로 그렸다. 하지만 안료에 달걀을 섞어서 그리는 기법을 택한 것은 그에게나 우리 모두에게나 엄청난 재앙이었다. 이 걸작은 몇 해를 가지 못해 벽화 바닥이 들뜨고 곰팡이가 생기는 등 상태가 나빠졌다. 재료를 잘못 선택한 것이었다. 원래대로 복원하려는 시도가 되풀이되었지만, 그때마다 상황은 더욱 더 나빠지기만 했다. 오늘날, 이 그림은 거의 누더기 상태로 남아 있다.

천재의 마지막 한탄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했다."

레오나르도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회상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서서 그림을 스스로 검토하고 비판하면서 매일 몇 시간씩 작품을 주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붓질 한 번 하지 않고 이틀이나 사나흘을 보내기도 했다. 그늘에 몸을 가릴 생각도 하지 않고 발판을 기어 올라가 붓을 잡고는 두세 번 붓질을 하고 나서 돌아가는 것도 보았다."

1519년 5월 2일, 그는 예순일곱의 나이로 세상을 떴다. 미술사에 길이 남을 걸작,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엄청난 분량의 쪽지 종이를 남겼으면서도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했다"고 한탄하던 그는 '지나치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았던 천재였다.

그가 끈기 있게 수백여 점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다 끝내는 끈기 있는 천재였다면 어땠을까? 그의 못다 이룬 꿈이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

타계 — 500주년

레오나르도
다빈치



2



3

1 모나리자
2 최악의 보존 상태인 최후의 만찬
3 가상복원한 최후의 만찬

지나치게 하고
싶은 것이
많았던 천재

[참고자료]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거장 / 인물세계사_장석봉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 – 반 룬의 예술사 / 들넉_헨드리크 빌렘 반 룬, 남경태

Gyeongnam Mecenat Members

경남메세나 회원사

경남은행
경남오페라단
농협경남본부
㈜무학
㈜센트랄
우수AMS㈜
㈜인산가
경남메세나협회
㈜한국야나세
㈜회인테크놀리지
㈜정일
청호산업㈜
경남도문화관광체육국
경원벤텍㈜
고성오광대
창원대학교 음악과
㈜리베라관광개발
범한산업㈜
산골농장(산청양계영농조합)
신화철강㈜
원광건설㈜
㈜지엔티
한국민예총
한국예총경남도연합회
㈜현대단조
화성G&I㈜
가야HBS㈜
㈜강민종합건설
거제시문화예술회관
거제켄벤션웨딩뷔페
경남개발공사
경남스틸㈜
㈜경남신문사
경남자동차판매㈜
경원여객자동차㈜
㈜경한코리아
㈜고구려
고려이노테크
㈜고려철강
고운가이드치과병원
고운치과병원
광득종합건설㈜
광신기계공업㈜
㈜구구
㈜국제전기
㈜국토보상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그린산업㈜
그림갤러리㈜
㈜금솔개발
㈜기산산업
김순태치과의원
㈜김해공영
김해상공회의소
낙우산업㈜
남명산업개발㈜
남양매직㈜
㈜네오씨티알
늘푸른 요양병원
대경건설㈜
㈜대길티에프
㈜대동주택
대방스페셜스틸㈜
대선주조㈜
대신금속㈜
(합)대신전기공업사
대한전선전기㈜
㈜대호엠엠아이
㈜대호테크
the큰병원
㈜덕광중공업
㈜동구기업
동양특수금속㈜
㈜동오프랜지
㈜동은화학
두남화학
디씨엠㈜
디케이락㈜
라온산업개발㈜
마산정안과
㈜마창대교
명제한의원
몽고식품㈜
무림페이퍼㈜
문윤수치과의원
미르치과의원
미조종합건설㈜
미즈맘 여성병원
법무법인미래로
㈜보덕건설
(재)봉림장학회
㈜부경
부곡스파디움
부산교통㈜
부성자동차학원
㈜부평디엔피
㈜북성산업
㈜사릭
사보이호텔
㈜산호수출포장
㈜삼보산업
삼우금속공업㈜
삼원동관㈜
삼원테크㈜
㈜삼전건설
삼정기업
㈜삼정터빈
삼흥열처리
삼흥테크
상남굿모닝내과병원
(유)상화도장개발
서병원
㈜서영시스템
서진이알피
선린자모의원
㈜성우
㈜성환금속
㈜세복
세아창원특수강
㈜세양정공
㈜세호테크
승진기계㈜
시영건설㈜
신광에이스전기㈜
신요푸드시스템㈜
신창기계
㈜신한물산
㈜쎄노텍
아진기계
㈜애드테크
㈜에스에이치아이
에이스브이
㈜에이스코트
영광산업㈜
㈜영남엘피씨
영민테크
㈜영신화공
㈜영일정공
㈜영진테크
㈜영창기업
예인여성병원
㈜오곡산업
오션커뮤니케이션즈
㈜ONE
㈜옥산아이엠티
원광산업석재
원한의원
㈜웰템
유림건설㈜
㈜유림철강
윤한의원
의료법인복음의료재단
의료법인생녬의료재단
의료법인진주의료재단
이레개발㈜
㈜이앤티
㈜이우
이피씨
인산죽염㈜
인화정공㈜
㈜장생도라지
㈜장성E.P.S
㈜장한
정남종합건설㈜
㈜정문애드테크
제일레스텍
㈜좋은콘서트
주용테크
중앙건설㈜
㈜중앙금속
중원종합건설㈜
㈜지에스비
창원상공회의소
㈜창원자동차학원
청아의료재단
초심공업㈜
최석주정신건강의학과의원
최익수의원
츄고쿠삼화페인트㈜
캠코 경남지역본부
㈜케이씨
㈜코앞건설
㈜코텍
쿠쿠홈시스㈜
태광실업㈜
㈜태완정공
㈜태현메가텍
㈜포스텍
피케이밸브㈜
하이에어코리아㈜
한국남부발전하동본부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니전자㈜
한국정기공업㈜
한국제강㈜
한국지역난방공사김해지사
한국태양유전㈜
한국항공우주산업㈜
㈜해동설계종합건축사
해성메탈㈜
해수종합건설㈜
현대공영㈜
㈜현대기업
㈜혜동
㈜호텔인터내셔널
홍기종합건설㈜
㈜화영
㈜화영
화영철강㈜
화이트치과
㈜화인에이티씨
회일종합건설㈜
㈜환웅정공
현대로템
흥일기업㈜
STX조선해양㈜
STX엔진㈜

Gyeongnam Mecenat

경남메세나 사업소개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 행복한 경남을 꽃피웁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정부에서 인증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입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Arts & Business

결연사업 | 기업과 예술단체가 1:1 결연을 맺어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예술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보장받습니다. 상생하며 서로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예술단체 워크숍 | 도내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경영 및 회계실무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예술인들의 기획 및 단체운영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회원사 지원 사업 Cooperation

찾아가는 공연 | 기업의 문화경영 활성화를 위해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공연, 전시를 기획하고 기업 내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문화공감/문화경영도서 | 회원사에 우수문화공연 관람티켓 및 문화경영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지정기탁 |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업후원금을 지정 예술단체에 전합니다.

문화 나눔 사업 Sharing Art

행복한 나눔공연 |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이웃들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즐거운 나눔티켓 | 도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공연과 전시 관람 티켓을 제공하여 정서함양을 돕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합니다.

연구 및 홍보사업 Development

홍보지 〈메세나지〉 발간 | 협회 홍보지를 연2회 발간하여 경남메세나협회의 사업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과 경남 지역의 문화예술 소식을 전합니다.
경남메세나포럼 | 회원사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문화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지역문화특화사업 |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또는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경남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합니다.
찾아가는 메세나 | 경남의 18개 시·군을 찾아 문화발전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술영재 장학금 수여와 지역민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연구보고서 발간 | 경남의 기업 메세나 활동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합니다.
홍보대사 위촉 | 경남메세나협회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기업과 예술의 행복한 동행을 응원합니다. (1대 홍보대사 금난새 / 2대 홍보대사 홍지민)

경남메세나대회 Gyeongnam Mecenat Awards

경남메세나대회 | 지난 1년간의 메세나 활동을 되돌아보고,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인들이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경남메세나상 | 경제와 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에게 고마움을 담아 공로를 시상합니다.

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 ART IS TREE

기업사랑메세나콘서트 | 경남메세나협회의 대중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기업들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화합과 소통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장비, 보다 안전한 장비

제일레스텍
JAEIL RESTEC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ACCOR 호텔 계열,
럭셔리 브랜드 최상위 '그랜드 머큐어' 가 이 곳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으로 고객님께 다가섭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특급호텔로 최고급 시설과 최상의 서비스를 책임지며, 창원의 명예를 지켜 가겠습니다.


RESIDENTIAL SUITE ROOM


GARDEN HOUSE


GRAND BALLROOM[BANQUET]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32

대표/예약 055.600.0700 연회/웨딩 055.600.0800 블루핀 레스토랑 055.600.0803

www.kicet.re.kr

KICET 한국세라믹기술원
KOREA INSTITUTE OF CERAMIC ENGINEERING & TECHNOLOGY

대한민국 세라믹산업의 심장,
한국세라믹기술원이 뛰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소재.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이 되는 소재.
한국세라믹기술원이 대한민국 세라믹산업을 숨쉬게 합니다.





모두에게 플러스가 됩니다

청년의 꿈과 도전을 더 펼칠 수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소외계층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BNK경남은행은 꼭 필요한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BNK 경남은행

창원우체국

요금별납

사랑받는 기업, 행복한 사회
메세나가 함께합니다

기업이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일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가치있는 나눔을 실천하며
예술이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줍니다.

메세나 기업의 나눔 덕분에 세상은 매일 조금씩 더 아름다워집니다.



경남메세나협회
GYEONGNAM MECENAT ASSOCIATION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F
Tel 055) 285-5611 Fax 055) 286-5610